

F. Bacon(1561-1626)

[Somer Francis Bacon - 프랜시스 베이컨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F. Bacon(1561-1626)

- * 자연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 강조
- *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력 강화 주장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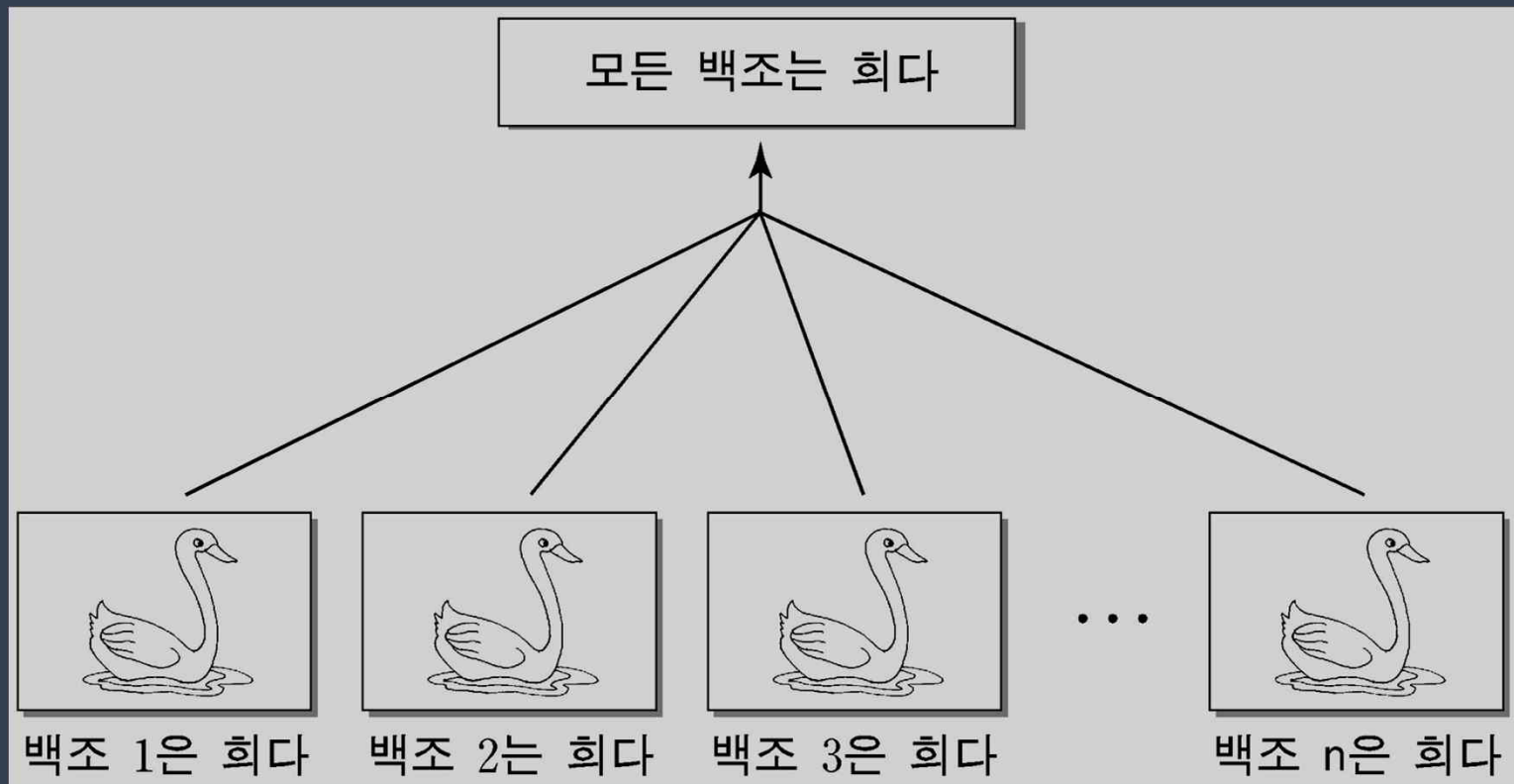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것은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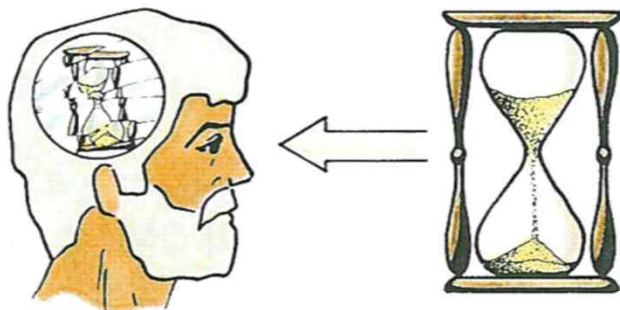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다. 자연은 오로지 복잡함으로써만 복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고찰에서 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작업에서는 규칙의 역할을 한다.

학문의 원칙 : 귀납법 vs. 삼단논증 부정

삼단 논법은 학문의 원칙으로도 적합하지 않으며, 중간 수준의 공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의 심오함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단 논법은 인간의 동의를 얻어낼 수는 있을지언정 대상(자연)에 적용할 수는 없다.

삼단논법은 명제로 구성되고, 명제는 단어로 구성되고, 단어는 개념의 기호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건물의 기초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모호하거나 함부로 추상된 경우, 그런 개념들을 기초로 하여 세운 구조물은 결코 견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참된 귀납법(induction)만이 우리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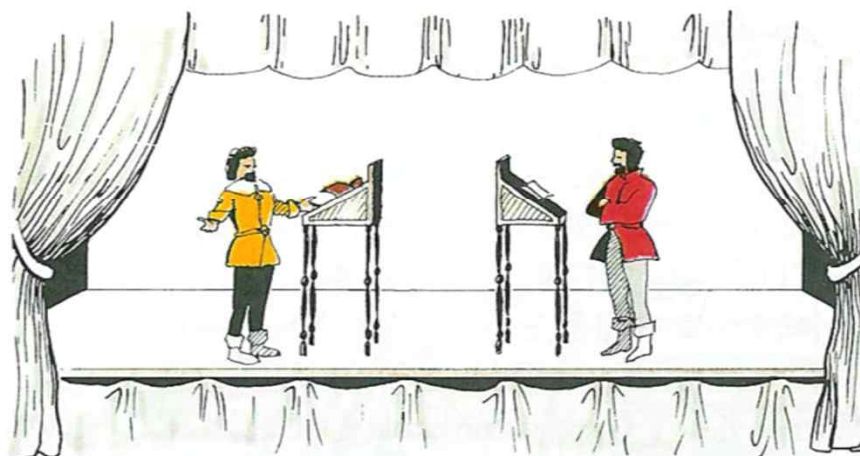
종족의 이상
인간 종족의 거짓상



동굴의 이상
개인의 편견



시장의 이상
언어의 편견



극장의 이상
철학 학파들의 편견